

나가하마성

히데요시의 나가하마 축성

1573년 9월 아자이씨 멸망 후 고호쿠(시가현 북부)를 지배한 사람은 하시바(도요토미) 히데요시였다. 아네가와 전투와 오다니성 공격으로 공을 세운 히데요시는 그 공적으로 아자이씨의 영지 대부분을 부여받아 오다니성에 들어갔다. 그리고 다음 해인 1574년 여름에는 이미 이마하마(나가하마시 고엔쵸 부근)에 축성을 시작하였다. 히데요시가 호반으로 성을 옮긴 이유는 비와호의 주운을 중시한 영지 경영에 있었다고 여겨진다. 히데요시의 축성에 대해서는 당시의 그림과 고문서가 거의 전래되지 않아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 목재는 지쿠부섬 등에서 운반해 사용되었으며 돌담용 석재는 영내에서 모아져 석불과 오류탑 등의 묘석까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가하마성은 1575년 무렵에 완공된 것으로 추정되며 히데요시는 지명을 '나가하마'로 고쳐 1582년까지 재성하였다.

나가하마성 그 후

나가하마성은 1582년 6월에는 기요스 회의에서 시바타 가쓰이에에게 양도되어 가쓰이에의 조카 가쓰토요가 입성하였지만 바로 같은 해 12월에 히데요시는 가쓰토요를 공격, 다음 해 4월에 벌어진 시바타 가쓰이에와의 시즈가타케 전투시에는 그 군사 거점이 되었다.

1585년부터 1590년까지 야마우치 가쓰토요가 성주가 되어 그 이봉 후에는 점차 황폐해져 고호쿠 진중문도의 사무실이 성안에 설치되었다고도 한다. 이 시기에 고호쿠는 사와야마 성주 이시다 미쓰나리(나가하마시 이시다쵸 출신)의 지배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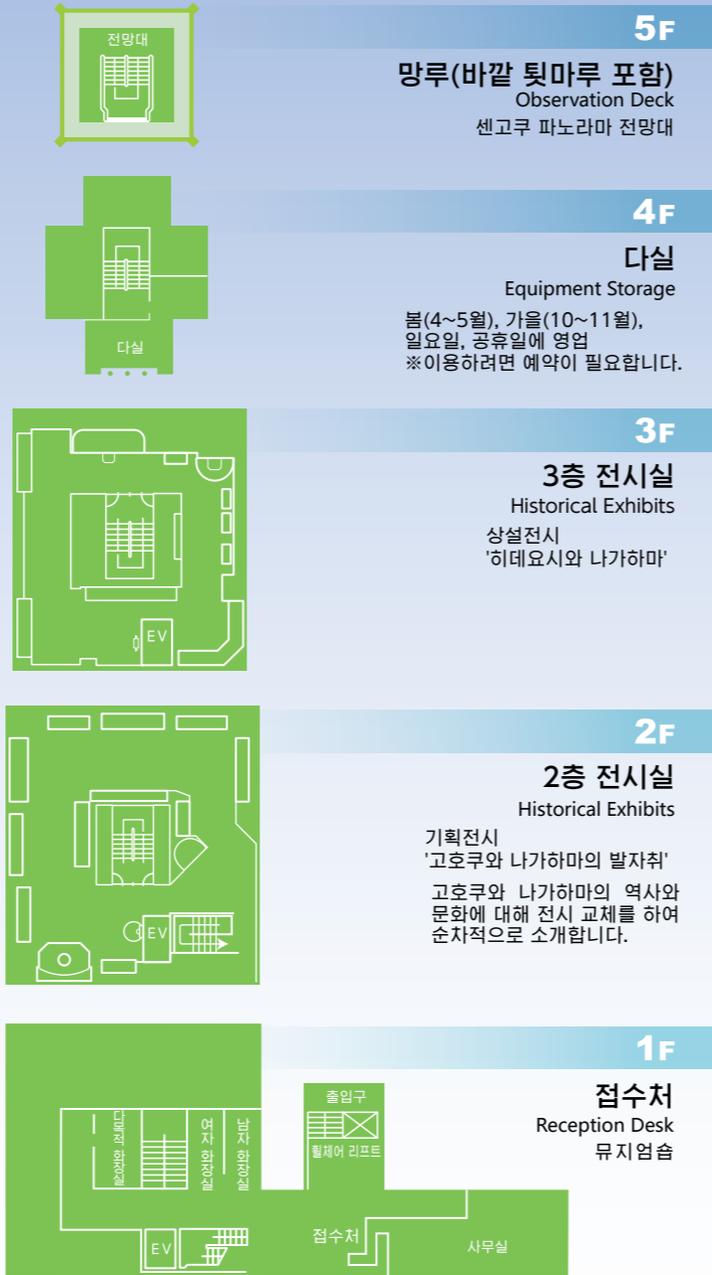
1606년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이복동생 나이토 노부나리가 성주가 되어 대수축을 실시한다. 1612년 그의 아들 노부마사가 성주가 되지만 1615년 셋쓰 다카쓰키성으로의 이봉으로 나가하마성은 고호쿠 지배의 역할을 히코네성에 양도하고 그 사명을 다한다.

폐성 후 돌담과 성루 재료는 히코네성 등으로 옮겨지며 나가하마성은 완전히 상실되었다. 나가하마 다이쓰지(大通寺) 다이도코로 문과 지젠인(知善院) 정문(모두 시 지정 문화재) 등은 그 유구로 전해진다.

쇼와의 나가하마성 축성

현재의 나가하마성은 고 도쿄공업대학 명예교수인 후지오카 미치오 공학 박사의 설계 지도에 따라 1983년에 재흥되어 '시립 나가하마성 역사박물관'으로 개관하였다. 본관의 외관은 2층의 큰 지붕에 망루를 얹은 초기 천수 양식으로 '히데요시의 나가하마성'을 재흥하고자 하는 시민의 열망으로 덴쇼기(天正期)의 성곽을 상징하여 건축되었다. 2006년 2월 '나가하마시 나가하마성 역사박물관'으로 개칭되었다.

관내 안내



지하

연수실

히데요시와 나가하마 3층 전시실

고호쿠는 무로마치 시대부터 아즈치모모야마 시대에 걸쳐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천하통일로 인한 전란에 휘말렸습니다. 특히 나가하마는 히데요시가 일국일성의 주인이 된 최초의 거점으로, 히데요시에 의해 조카마치(城下町) 경영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시즈가타케 전투도 병풍 (우측 부분) 히데요시 본진

고호쿠와 나가하마의 발자취 2층 전시실

고호쿠와 나가하마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그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고호쿠의 여명

고호쿠 지역은 예로부터 다양한 생활상을 나타내면서 생성, 발전해 왔습니다. 이미 산기슭과 저지대에서는 조몬 시대부터 사람들의 생활상을 나타내는 유물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앙과 종교 문화

나라 시대부터 아즈치모모야마 시대에 걸쳐 고호쿠 사람들은 다양한 불교 신앙을 수용하였습니다. 자연 신앙과 고호쿠의 수호신이 중심이 되는 토착 신기신앙 등과의 융합 속에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모두 풍부한 고호쿠의 종교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자이 3대와 고호쿠

아자이씨는 원래 슈고 다이묘 교고쿠씨의 가신이었지만 1523년 이후 교고쿠씨의 내분을 틈타 대두하여 고호쿠의 센고쿠 다이묘가 되었습니다. 오다니성을 거점으로 삼으며 그 후 스케마사, 히사마사, 나가마사로 3대에 걸쳐 정권을 유지하지만 1570년 아네가와 전투에서 패배, 그로부터 3년 후에는 오다 노부나가에게 총공격을 당해 멸망하였습니다.

※2층 전시실은 전시 교체를 하여 순차적으로 소개드리고 있어 반드시 위의 주제가 전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나가하마성 축성 디오라마

엔슈, 미의 세계

아즈치모모야마 시대부터 에도 시대는 가이호 유쇼와 고보리 엔슈 등 고호쿠 출신들이 '중심'에서 그 재능을 꽃피운 시기이며, 에도 시대 중기 이후 발전하는 나가하마쵸와 그 주변 지역에서 서민문화를 키워온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고보리 엔슈상(小堀遠州像)

구니토모 철포 대장장이와 과학자인 잇칸사이



반사망원경(구니토모 잇칸사이 제작)

구니토모 철포 대장장이 집단은 근세의 태동 과정에서 사카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화승총의 양대 생산지 중 하나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철포 대장장이이면서 일본에서 처음으로 반사망원경을 만들어, 달 표면과 태양 흑점의 관측을 실시한 에도 후기의 구니토모 잇칸사이는 높이 평가받고

근대화의 진행

메이지 유신을 맞은 나가하마는 직물 공업으로 다져진 경제력으로 빠르게 근대화가 진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871년에는 현내 최초의 초등학교가 창립되고, 1877년에는 국립은행이 설립되었습니다. 1882



오미 나가하마 공동운반회사 전단지

년에 철도가 개통, 이에 따라 비와호에 철도 연락선이 운항됨으로써 나가하마는 근대 교통의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군청과 우체국 등의 근대적인 공공시설도 잇따라 정비되어 나가하마는 눈부신 변모를 이루었습니다.

